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11. 28.(목) 11:00 < 11.29.(금) 조간 > 배포 2024. 11. 28.(목)

한-방글라데시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

-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통상네트워크 확대
- 서남아 최초 방글라데시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(TIPF)도 체결

방글라데시와의 무역 협상 개시로 서남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.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셰이크 바쉬르 우딘(Sheikh Bashir Uddin) 방글라데시 상무장관은 11.28(목) 오후 서울에서 한-방글라데시 경제동반자협정(EPA)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, 아울러 양국 간 포괄적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(TIPF)도 체결하였다.

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대국(1.7억명)이자 최근 3년간 연평균 6.6%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서남아 거대 잠재시장으로, 이미 섬유·봉제업 위주로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. 특히, 기능성 섬유 등 현지 의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추진되면서, 우리 기업들과의 공급망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. 또한, 방글라데시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전력·도로·항공 등 공공부문 주도의 인프라 구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, 우리 건설·엔지니어링 기업들의 진출 확대도 기대된다.

정 본부장은 “오늘 서명한 TIPF를 통해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의 기본적인 틀을 조성하고, 이를 기반으로 시장개방을 포함한 EPA 협상을 추진해나감으로써 협력 확대의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”이라며, “이를 통해 현재 섬유 분야에 집중된 양국 간 교역 품목을 다각화하고, 전자·디지털 등 방글라데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 한-방 양국은 2025년 상반기 1차 공식협상을 개최하고, 조속한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	책임자	과 장	박정미 (044-203-5740)
		담당자	사무관	이 연 (044-203-5744)
담당 부서	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이정주 (044-203-5710)
		담당자	사무관	이지연 (044-203-571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방글라데시 개요**

□ 일반 사항



○ 벵갈만에 면한 남쪽을 제외한 3면이 인도에 둘러싸여 있으며, 동남쪽은 미얀마와도 인접

○ 가장 큰 도시는 수도 다카, 제2의 도시는 최대 무역항 치타공*

* 한국수출가공공단 소재지

□ 경제 현황

○ **(경제성장률)** 코로나19 시기에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최근 20년 이상 꾸준히 높은 성장세 유지

* GDP 성장률(IMF) : 7.9% ('19) → 3.4% ('20) → 6.9% ('21) → 7.1% ('22) → 6.0% ('23)

○ **(산업)** 섬유·봉제업*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, 최근에는 기존 단순 봉제업에서 탈피, 기능성 섬유 등 고부가가치화 추진중

* 전체 인구의 약 30%가 종사하며, 수출 총액의 80%, GDP의 12% 차지

○ **(교역)** '23년 기준 총수출 약 584억 불, 총수입 약 827억 불 규모

- 한-방 교역규모는 약 23억불로, 對방 수출은 1,626백만 불(석유제품, 합성수지, 철강 등), 수입은 649백만 불(의류, 신변잡화 등)

○ **(대외관계)** '26년 UN 최빈개도국(LDC) 지위 졸업에 대비하여, 일본·중국·인도·태국 등 주요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중

- 우리나라도 인구 1.7억명의 거대시장 진출 기반 확보를 위해 방글라데시와 경제동반자협정(EPA) 체결 추진